

동부정밀화학, 친환경 접착제 “으쓱”

환경마크협회, 건축자재 관련기업 관심 집중 ... 오공도 실내공기질 개선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주범으로 꼽히는 접착제 중에서도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이 등장했다.

환경마크협회는 10월12일 회의를 열고 동부정밀화학의 7개 제품과 오공의 1개 제품 등 건축용 접착제 8개 제품을 포함해 25사 63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인증키로 했다고 10월19일 발표했다.

환경마크협회에 따르면, 해당 접착제에는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포름알데히드도 거의 방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인체유해 중금속이나 Phthalate계 가소제 등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접착제가 환경마크를 처음으로 받은 것은 환경부가 2004년 8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해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제품 등 7종을 새로 환경마크 대상 제품군에 포함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새로 환경마크를 받은 63개 제품 중 접착제와 불박이형 목재 제품, 사무용 목재가구, 페인트, 실내용 바닥 장식재 등 실내공기질 관련제품은 모두 33개 제품에 이르러 새집증후군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화학저널 2004/10/20>